

전쟁과 유가상승 대처법



송지승 교수의 경제 읽기

지난 2월 27일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전날(26일) 배럴당 65.21달러이던 두바이산 유가는 3월 11일 기준 100달러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기대감이 줄어들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 조기종식 가능성 발표로 전쟁의 장기화 우려가 감소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던 유가는 잠시 소강상태에 있다.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가 상승보다는 원유 수요에 해당하는 만큼의 공급을 충당하지 못할 우려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이에 맞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의 수송통로가 막히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리적으로 보면, 폭이 33km인 대륙붕지대로 수심이 낮아, 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항로 폭은 9km로 입항과 출항, 그리고 중간 완충 구역이 각각 3km로 되어 있다. 이런 좁은 항로에 대한 이란의 원유수송 선박에 대한 공격 위협은 세계원유수송량의 20~30%, 그리고 2025년 기준으로 국내 수송량의 69% 원유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둘러싼 중동의 불안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경우 과거 70년대에 겪었던 두 차례의 오일 쇼크 악몽이 되살아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든다. 미국과 이란전쟁이 3차 오일쇼크로 진행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필자가 보기엔 그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1~2차 오일쇼크 때는 미국이 중동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였지만, 2010년대부터는 셰일가스 개발로 원유수출국이 되면서, 세계원유시장의 공급구조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다른 이유는 이란을 제외한 다른 중동국가들이 과거와 달리 미국과 호의적 관계로 유가 담합의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또 다른 이유로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신속한 출구전략을 추구함에 따라서 전쟁 장기화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어찌 됐든 산유국이 아닌 우리 입장에 유가 상승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 건임엔 틀림없다.

이에 정부는 3월 9일 정유사와 주유사 간의 담합과 같은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최고가격제도 도입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강력한 개입 수단으로서 최고가격(price ceiling)통제는 실효성이 낮고 경제에 주는 부작용이 더 크다. 경

제학적으로 볼 때 정부의 인위적인 최고가격 설정은 초과수요와 더불어 공급 부족을 가져온다. 이는 누구한테도 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필자는 정책실패의 후유증 방지와 안정적 원유 수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유가 상승이 소비자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선 현행 적용하고 있는 휘발유 7%, 경유 10%의 유류세 인하에 대해 대폭적인 확대(예로, 20%)가 요구된다. 경기회복이 더디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서민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장 친화적인 유류세 확대 폭이 절실하다.

둘째, 20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정부 및 민간보유 전략비축분 방출을 활용하면서 중동으로부터의 원유 부족분을 일시적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셋째, 에너지 절약 운동의 하나로써 승용차 요일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다.

넷째, 과거 오일 쇼크 때의 원전이나 대체에너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한 예로서 우리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소형 모듈원전(SMR)을 통해서 대체에너지 개발을 주도하고 이를 우리의 주력산업으로 키우는 것이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AI 인재 유출, 늦기 전에 막아야



기지수첩 차현정 (산업부)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면 테슬라에 합류하라”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SNS를 통해 한국을 꼭 잡아 인재 영입 메시지를 던졌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인재를 향해 직접적인 ‘러브콜’을 보내는 모습이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웰컴 역시 한국 반도체 연구 인력을 주요 영입대상으로 보고 3D D램 연구개발 전문가 확보에 나섰다.

문제는 이런 움직임이 단순한 채용 경쟁을 넘어 인재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기업들은 파격적인 연봉과 연구

환경,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내세워 한국의 우수 인력을 흡수하고 있다. 실제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2024년 미국 취업이민 비자(EB1·EB2)를 받은 한국 고급 인력은 5847명으로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의 핵심 두뇌들이 조용히 해외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국내 기업들도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LG는 사내 대학원을 설립해 직원들을 석·박사급 AI 전문가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대학과 협력을 확대하며 인재 선점에 나섰다. SK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AI 조직을 챙기며 젊은 인재를 전면에 배치하는 등 인재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인재 유출의 뿌리는 훨씬 깊은 구

조적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이공계 인재의 급격한 감소다. 한국에서는 상위권 학생들이 공학보다 의대를 선택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재 유출까지 겹치면 산업 경쟁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AI와 반도체, 로봇 등 첨단 산업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AI 시대에 인재는 더 이상 기업의 자산만이 아니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인재 확보 경쟁은 기업의 몫으로만 남겨져 왔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한국 기업이 인재를 지킬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인재를 붙잡을 수 있느냐의 문제다. AI 인재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그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클지 모른다.

/hyeon@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3일 (음 1월 25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꾸준히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60년생**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고마움을 느낍니다. **72년생** 희망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84년생** 들떠 있다가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  **49년생** 고향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61년생** 외부로 나가는 것을 삼가세요. **73년생**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면 좋은 운이 들어옵니다. **85년생** 모든 일에 새롭게 도전해 볼 때입니다.
-  **50년생**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62년생** 마음속에 있는 작은 근심은 이제 버려야 할 때입니다. **74년생** 멀리하는 사람과 부딪히게 됩니다. **86년생** 모든 일에 새롭게 도전해 볼 때입니다.
-  **51년생** 이상한 일에 휘말리게 되어 상처를 받습니다. **63년생**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세요. **75년생** 천 번이든 만 번이든 참으세요. **87년생** 모든 일에 피가 많으니 이루기 어렵겠습니다.
-  **52년생**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마세요. **64년생** 금전 거래는 다음으로 미루세요. **76년생** 혼사가 있겠으나 상대방이 까다로워 고민입니다. **88년생** 쓸데없는 접대는 낭비일 뿐입니다.
-  **53년생** 오랜 끈기와 인내가 결실을 보게 됩니다. **65년생** 평소 하던 방식을 변경하지 마세요. **77년생** 지금은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곧 전환될 것입니다. **89년생** 되도록 길 밖으로 나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54년생** 이윤이 많은 거래 건이 성사됩니다. **66년생** 다소 이루어질 조짐이 보입니다. **78년생** 가고자 하는 곳에 반가운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90년생** 늦은 귀가는 절대 피하세요.
-  **55년생** 주위의 얄은 말을 듣고 격이지 마세요. **67년생**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세요. **79년생** 쇠를 끊을 정도의 힘이 생겨납니다. **91년생** 누군가가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  **56년생** 세상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68년생** 준비된 자만이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80년생** 집안이 화평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92년생** 물가에 가려져서 조금만 미루세요.
-  **57년생**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69년생** 건강에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81년생** 관계 구실을 조심하세요. **93년생** 가까운 곳으로의 나들이는 길하나면 여행은 금물입니다.
-  **58년생**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세요. **70년생** 노력이 큰 성과를 보지 못합니다. **82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었습니다. **94년생** 여행을 계획했다면 다음으로 미루세요.
-  **59년생** 배운 배려와 마음은 결국 되돌아옵니다. **71년생**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세요. **83년생** 길었던 방향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95년생** 중심을 잡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상회의四季

기후와 조후



사주명조에 조후(調候)가 있다. 조후란 명리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예를 들어 꽃이 아름다워도 향기가 없으면 생명 없는 조화와 마찬가지로 사주구조에 있어 조후는 타고난 사주가 격이 좋아도 그 사주가 심분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아무리 햇살이 좋아도 건조하면 피부가 금세 주글주글해져서 노화를 촉진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하여, 명리학의 3대 고전 중 하나로 알려진 ‘궁통보감(窮通寶鑑)’ 등에서도 조후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 인간들이나 동물 등 무릇 생명 활동을 하는 존재들에게는 추위와 더위의 적응과 대처가 매우 중요하듯이 사주의 오행 구성 역시 한란조습(寒暖燥濕)에 잘 대처하는 구조여야 인생이 수월하다는 것을 뜻한다.

즉 심간심이지는 모두 우주와 천지자연을 구성하는 음양오행인 목화토금수 각 요소를 배치하니, 태어나 살아가는 생명은 겨울에는 따뜻한 햇볕이 필요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물이 필요하듯 각기 자신에게 필요한 조후를 갖추어야 한다. 이렇듯 인간의 사주 관명에 기후적 의미를 도입한 까닭은 바로 사물의 이치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자연의 생성과 순환, 그 변화하는 이치를 알게 되면 인간이 천지자연의 기운의 에너지 성질을 받아 태어난 집적체이니, 각자의 성질을 잘 알아서 조화와 순리에 따를 때 가장 바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간파한 것이다. 격물치지(格物致知)란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지식을 완전하게 하는 것으로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사물을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본질까지 알아야 만물을 이롭게 하는, 그러니 사계절의 영향 조후를 기후에 비유하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학원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프렌즈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4			8		2	1		
				2	1	4		9	
	8			6		5			
			2						
	5							6	
					9				
		5		9				3	
6		1	3	5					
4	3		1					5	6

					3		6	
3		4	2			7		
	7			1	5			9
6		1						8
		2					9	
			3				6	1
	5		9	3				7
		7			4	2		6
6		1						

9	9	6	2	8	1	2	8	7
8	7	2	2	9	6	1	6	9
2	8	1	9	6	7	9	2	8
9	1	8	6	7	9	8	2	8
2	9	2	8	1	8	7	9	6
7	6	8	9	2	2	9	1	8
6	2	9	7	9	6	2	8	1
8	8	7	1	2	2	8	9	9
1	2	9	8	8	9	6	7	2

6	9	8	2	2	1	8	9	7
9	8	2	7	8	9	2	1	6
7	2	1	9	8	6	8	9	2
1	2	9	2	7	8	6	8	9
8	7	6	1	9	9	2	8	2
2	8	9	6	2	8	1	7	9
2	6	8	9	1	7	9	2	8
9	1	2	8	9	2	7	6	8
8	9	7	8	6	2	9	2	1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87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74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